

UMC 감독직에 동성애자 '후보' 지명 충격

미연합감리교회(UMC) 장정에는 동성애자 감독직 임명 불허
그럼에도 소속 연회 2곳에서 동성애자를 감독직 후보자로 지명



지난 2012년 5월 미국 연합감리교(UMC) 총회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미연합감리교회

미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이하 UMC) 소속 연회 2곳에서 동성애자를 감독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장정(Book of Discipline)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후보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크리스천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UMC 서부연회와 북동부 연회를 통해 '카렌 올리베토와 데이비드 메레데스, 프랭크 울프' 등 세 명을 감독직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UMC 산하 '동성애 응호' 단체인 '레컨사일링 미니스트리스 네트워크(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RMN)'가 발표했다.

RMN 대표 매트 베리맨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번 후보자 선정은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주장하며 "2016년 연회에서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감독직에 대한 세 명의 동성애 후보자를 선정하셨다. 카렌 올리베토, 프랭크 울프, 데이비드 메레디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UMC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동성애 감독직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UMC 장정에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며, 교단에서 감독으로 안수 받을 수 없다. 또한 감독으로 안수 받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약점과 사회적 압박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거룩한 삶의 높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들 동성애자들이 후보로서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UMC 총회에서는 성(性)적 지향성(동성애)에 관련한 어떤 안건에도 투표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으며, 위원회를 만들어 교단의 현재 정책을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5월 21일 총감독회는 "장정의 규율을 준수하는 동시에, 계속 제기되는 불평과 소송,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총회와 회의에 앞서 성경에 기초한 교단의 입장이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RMN은 UMC의 수용을 바

라는 100명의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들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모든 UMC 감독과 목회자들이 동성애 행위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UMC 산하 기관인 UM Action program of the Institute의 이사 존 렐퍼리스 목사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조차 이점에 동의했으며,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동성애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거룩한 언약으로서의 아름다운 결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강력한 욕망을 좇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곧 개인의 희생을 의미 한다. 예수님과 주님 안의 영생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소피아 기자

기독교인의 걱정근심 내려놓기

신앙에서 성숙은 우리 삶의 걱정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해지려면 걱정근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많이 기도하라. 기도와 근심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더 하고 싶은지 선택하라.

둘째, 자례로운 일을 하라. 최선을 다할 때, 쓸데없는 염려에서 해방될 것이다.

셋째,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성경에서 소망,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생각을 주워깊게 선별해서 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만 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빌4:8)

다섯째, 더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걱정을 내려놓게 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복음화·성시화운동 전개할 것”

미기총, 제18차 총회 개최… 전영현 총회장 선출



미기총 제18차 정기총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 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이하 미기총) 제18차 정기총회가 5~8일(현지시각)까지 필라델피아영생장로교회(담임 목사 이용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부지역 수석회장이며 이번 대회 준비위원장을 전영현 목사(서부), 공동회장 민승기 목사(서부), 공동회장 노재

상 목사(중부), 상임회장 심평종 목사가 선출됐다.

전영현 목사는 "주어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 계획으로 통일 포럼을 생각하고 있다. 4개 지역 공동회장 중심으로 복음화와 성시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소강석 목사(새언데교회), 고시영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등이 강사로 나와 'Pray for One Korea & Holy America'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최낙신 목사는 "미기총이 교회 일치와 부흥 콘퍼런스, 지역 교협과의 간담회, 8.15 공동성명 등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온전한 연합이 미기총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다. 앞으로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과 다툼 없이 오직 성령의 도움만을 바라며 함께 달려가자"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행복목회 Happy Ministry Conference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백동조 목사
(목포사랑의 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한다.

행복의 달은 예수!

행복 메뉴얼은 성경!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이다.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는 자리에 동역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6.8.15 10AM ~ 8.16 10PM
은혜한인교회

대상: 담임목사, 사모, 선교사, 부교역자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당일등록: 9~10AM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갈보리믿음교회가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며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임직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창립 12주년 갈보리믿음교회의 뜻깊은 임직식”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가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며 안수집사와 권사 등 새 일꾼을 세웠다. 이 교회는 LA한인타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형교회 중 하나로 10일 주일 오후 임직식을 가졌다.

짧은 교회답게 임직식은 매우 간소했다. 대부분의 식순도 갈보리 믿음교회가 맡았다. 설교는 강진웅 담임목사가 “지속 가능한 리더십(민14:36~38)”이란 제목으로 전했고 임직 서약과 선포 순서도 담임목사가 맡았다. 권면과 축사 등도 외부 초청인사 없이 이 교회 장로들이 했다.

강 목사는 “우리 교회와 직분자

개개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권면하고 축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축도는 이례적으로 라팟 기르기스 목사가 맡았다. 그는 갈보리믿음교회와 함께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미국교회인 임마누엘장로교회의 대표다. 두 교회는 종종 연합예배와 연합행사로 교회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는 사이다.

또 임직식을 장식해 준 화려한 화환은 없었지만, 임직자 11명의 임직 소감과 각오가 담긴 소책자가 임직식을 빛나게 했다.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하는 이들은 ‘섬기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성도들과 그

각오를 함께 나눴다. 강진웅 목사는 “공동체의 비전은 크기와 상관없이 지속성이 관건이다. 교회의 비전을 이어받을 차세대 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물거품이 된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얻는 것이며 공동체의 비전을 지속하는 축복의 연결 고리”라며 “이민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지, 우리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될지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한 믿음의 도함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성도와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준형 기자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홍보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컨퍼런스는 강사 백동조 목사를 초청하여 오는 8월 15일(월)~16일(화)까지 열린다.

“행복한교회, 행복한목회 배우자”

은혜한인교회…행복목회 컨퍼런스 개최 기자회견

은혜한인교계가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연다.

강사는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다. 백 목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약 생활은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복목회주의자로, 30년 전 그가 개척한 목포사랑의교회는 현재 4천 명 규모로 성장했다. 그는 처음 이 프로그램을 성도들을 위해 개발했지만, 목회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 후배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2011년 3월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7회를 거치는 동안 1,500명이 이 과정을 거쳐 행복한 목회자로 거듭났다고 한다.

또 이들은 행복목회 동문으로서 목회의 고민을 나누고 목회 자료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한기홍 목사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회 철학도 행복목회인데, 백 목사는 이미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목회자들의 목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

다”면서 “그의 행복목회가 이민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는 백 목사가 12번 강의를 하지만 한 목사도 3번의 특강을 하기 때문에 이민목회 상황에 맞는 ‘나만의 행복목회’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행사는 OC교협, OC목사회, 남가주목사회도 후원한다. 민승기 OC교협 회장은 “힘든 이민목회를 행복목회로 변화시켜 줄 이 컨퍼런스를 통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힘도 얻고 더욱 하나 되길 바란다”고 연합을 강조했다.

이 컨퍼런스는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10시까지 계속되며 담임목사와 부목사, 선교사, 사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인 등록 시 100달러이며 부부가 함께 등록하면 150달러다. 교재와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숙박은 제공하지 않는다. 선착순 200명.

*문의: 714-446-1000

김준형 기자



나눔과섬김의교회가 10일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 식순을 맡은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LA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리”

나눔과섬김의교회 이전 예배…김종용·안기정 목사 동사목회

나눔과섬김의교회가 10일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담임 김종용 목사가 교무처장으로 있는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90006) 내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김 목사와 함께 안기정 목사가 동사하기로 했다.

김 목사와 안 목사는 이날 짧은 글로 교회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들은 “건강한 교회를 LA 땅에 세우는 것을 꿈꾸며 나눔과섬김의교회를 다시금 개척하는 마음으로 동사 목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그 말씀이 심령을 회복시키며 새 힘을 공급하는 교회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LA 구석구석을 누비며 잊어버린 심령을 간질히 부르시는 예수님이의 음성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전 감사예배는 김종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김광삼 목사(동문교회 담임)가 대표기도하고, 조하림 목사가 고린도후서 5

장 17절 성경 본문을 봉독한 후 윤성원 목사가 “새 역사”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허민진 목사가 현금기도하고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와 김재율 목사(남가주교협수석부회장), 이호우 목사(OC교협수석부회장)가 축도했다. 예배 중에는 조미나 목사의 바디워십 공연, 윤에스더 목사의 찬양, 김영재 목사의 색소폰 연주 등이 있었다.

김준형 기자



얼바인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에서 김동관 목사를 초청해 “행복한 교회 생활” 이란 주제의 특별 부흥성회를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다. 김 목사는 칼빈대학교 교수이며 수원안디옥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2016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 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주관 :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문의 : 기도원 (951-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 선착순 150명

대상 : 남가주 지역 작은교회 청소년 (6 - 12 학년)
※한교회에서 15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11일(월)

등록비 : 무료 (Free)

등록방법 :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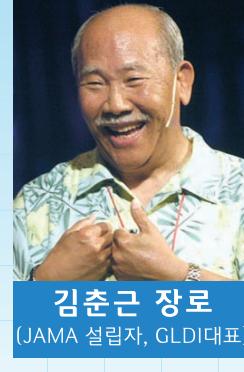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Email : fgpmyouth@gmail.com

Fax : 951-928-4017

| 강사



김준근 장로

(JAMA 설립자, GLDI대표)

| 새라 김 사모

(TVNEXT 대표)

| 노형건 선교사

(미주복음방송)

| 옹기장이 선교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사야 11:1~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육족들, 씨가진 채소, 물속의 어류들,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특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모든 조건들을 삶의 바탕으로 활용하여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에덴동산에 마귀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마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성을 잃고 하나님에 금하신 계율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베림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 잡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기질을 그대로 흉내낼 수 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파생 시켜주셔서 사람들만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어떤 짐승에게도 영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흑인 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간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종교심리를 나타내고 여러 모양의 자기 섬김의 우상을 만들어 정신적 지주를 삼고 위로와 도움을 기도하는 이런 것을 신앙적 용어로 종교심리라합니다.

종교(宗敎)는 근본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씩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왕은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 표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간다는 뜻이고, 그 뿐 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앞으로 이새에게서 뻗어나가 갈 연한 순이 가지가 되고 가지가 뻗어나가 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이것은 이 새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이 새나 이새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원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메시야를 보내주실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짐하시고 강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가지고 반드시 결실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다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동정 탄생하셔서 삼십 년 동안 준비과정으로 기도하며 지내셨고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위에 임하시는 것이 모든 주변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열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도 자기 사명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의 성령이나는 설명이 여기 2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멀리는 마음으로 섭기기만 힘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끝에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약 8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예언이며 신약은 성취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30절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느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며 힘써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죄와 허물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그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빙립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사11:3~4)

입의 막대기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의미하며, 입술의 기운은 영의 기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형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체질이 땅 렁어리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지금은 오대양 육대주라하는데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려 오시어 구원얻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

스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도 사탄이 역사하면 부부사이에도 영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영적 소속이 다를 때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참고 견디며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끝내 승리함으로 성령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림을 받는 곳이 가정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공중에서 3년 반을 계신다고 하면 이 땅위에 구원얻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흉포와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한 믿음은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마귀의 소굴에 함께 어울려 지옥길에 빠져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마지막 환난시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 믿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엉어져서 불의와 함께 마귀에 속하여 돌아가 버리고 또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될 자들도 있더라고 다니엘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칠년 대환난이 있는데 재림전 삼년반은 하나님께 성도를 적그리스도에게 부치심으로 불신 세력에 의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 학파, 고통,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세상에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끝에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기운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그들을 살지 못하도록, 견디기 어렵게 예수님으로부터 보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멀망치 않고 다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왕국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은 죽어서 음부와 사망에 가두어 놓습니다.

땅덩어리가 하늘과 함께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허물어지고 뒤집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생명 과일도 있고 온갖 징후도 구원얻은 성도들의 부활한 세계에 함께 사는데 서로 절대로 해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 들어갈 자격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5~36)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 TV 한국 방송 설교 | 한국 신문 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한국 신문 설교 |
|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
| 해외 선교 설교 | | | |
| TV 미국 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
|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 시카고 기독교방송 |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토요일 오후 5시 / LA 미주 복음방송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 AM1190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LA 미주 기독교방송 |
| 미국 신문 설교 | | 기독일보 5면 설교 | 기독일보 5면 설교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AM165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 | | FM91.5(SCA) | LA 미주 기독교방송 |
| | | AM16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LA 미주 기독교방송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55/55 ppm 45/45 ppm 36/36 ppm 28/28 ppm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bizhub MarketPlace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ies

Beautiful Church
Rowland Heights, California, United States
Position: Children's Pastor
Denomination: Baptist-SBC
Job Type: Full Time

Job Description:

Qualifications

Education and Experience:

* Bachelor's degree in Children's Ministry or a related field is required;
* Work experience in a church-based children's ministry utilizing volunteers is required;

Faith and Life:

* Must be called by God to minister to children and preschoolers;
* Must have a grow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 Must be in agreement with the Purpose Statement, Core Values, statements of faith, Constitution, By-Laws and general vision of Beautiful Church;
* Must be willing to become a member of Beautiful Church;
* Must pass the church's criminal background check process
the satisfaction of the Senior Pastor;

Ministry Skills:

* Servant attitude towards God, leaders, other team members, the church, and guests;
* Self-motivated with a team approach including the ability to motivate volunteers;
* Competent in leadership abilities to include organization, delegation, administ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Proven ability to work well with parents, volunteers, church staff and children;
*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 Strong decision making skills;
* Demonstrated ability to recruit and coordinate volunteers;
Please submit a résumé, statement of faith and/or personal testimony, a recent sermon video clip or web link, and ministry 3 references.

Contact: Sarah Park

beautifulchurch@hotamil.com / (626) 810-3455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www.beautifulchurch.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직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다문화선교(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2016년 미국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은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민정책에 각각 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먼저 H-1B비자의 경우, 트럼프는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국내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그 후에 외국인들을 채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도 적합한 인원을 찾을 때까지 모든 영주권 발급에 지정되지 않은 기간의 유예를 두는 제도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클린턴은 매년 H-1B비자의 발급 수를 증가시켜 전문 인력 확보 및 미국 노동자들의 수입 향상과 건강보험 및 최저임금 증가라는 이민정책의 개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민개혁과 불법체류에 관하여도 클린턴은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불법체류 중인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트럼프는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출생해 취득한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시대적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들은 앞으로 미국에서의 다문화정책과 목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 이후 캐나다와 호주에서였다. 그 당시 캐나다에서는 퀘벡 주와 서부 주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화 간 충돌을 해소하고 국민 국가의 통합을 위해 ‘2개 국어, 다문화주의’를 표방

하였다.

호주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민족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이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소수민족 문화와 주류 문화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화주의(Assimilation)’와 ‘용광주의(The melting pot)’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동화주의란 인종적 문화적 이질성이 높은 사회에서 소수문화 계층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같이 자연스럽게 소수문화 계층들이 다수문화 속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어 갔다.

이처럼 다양한 소수의 문화를 주류 문화 속에 통합시키려는 경향이 동화주의이다.

동화주의는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미국의 ‘용광로’ 정책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다문화주의를 통한 언어와 종족의 혼합은 다문화 교회의 구성 요소이며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다문화주의 교회는 다양한 언어와 인종적 그룹들로 구성된 교회로 전도와 교회개척, 목회사역의 범위가 자국민 뿐 아니라 소수민족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다문화 인구의 유입은 다른 문화와 종교가 그 사회에 소개되어 언어뿐 아니라 음식, 음악, 예술, 의복, 건축,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다문화 주의가 교회 내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듯하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신앙의 자유”, “선택의 자유”, “생각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소개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 루어졌나니”(갈5:13~14)

그렇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이민자들의 통합과 다문화 사회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듯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 현시대 다문화 이주민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된 사회와 문화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사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지금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다문화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명령을 신중하게 고민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나의 비밀



박 정 환 목사

예수인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줄에 굽 광야에서 오직 만나만 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만나가 가진 신비성 때문이다. 이 신비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 그날의 만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완악함과 죄성을 충분하게 채우고 남을 은혜를 보게 된다. 이 만나가 가진 은혜를 3가지 정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나는 김치와 같다. 한국 사람에게 김치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류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현재 개발된 김치 종류는 약 192종이나 된다고 한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이와 같았다. 성경을 보면 단순한 쌀가루와 밀가루 같은 양식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고 만들어보니까 굉장히 양식임을 알게 되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보면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눈처럼 녹아 스프(출16:21)로 끓여 먹을 수도 있는 다양한 메뉴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의 만나로 비유된다.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 또 다르게 다가와 나의 상황을 만지고 채워준다. 말씀은 절대 한 가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다. 더 깊게 묵상하면 할수록 깊은 맛을 우려내 서로 다른 상황속에서 특별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영의 양식이 된다. 말씀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닌, 계속 응용하고 깊이 보는 습관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광야생활이 절대 두렵지 않게 된다.

둘째, 만나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준다. 만나를 당시 신

셋째, 만나는 그날의 만나이다. 사람에게는 항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과거에서 발생했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생기는 염려와 보장되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이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그랬다. 아무것도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오늘의 만나를 내일로 저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장된 만나는 내일이면 냄새가 나거나 녹아 없어졌다고 기록한다. 그리고 다음 날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보면 어김없이 거기 만나가 있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원리이다. 한번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왜 번거롭게 만드는 것일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다. 우리는 은혜가 마르거나 잊혀지거나 날아가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부족할까? 내신앙은 왜 연약할까? 생각하는데 은혜는 반드시 마르게 되어있다. 그것은 날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로 유한하게 주시는 진짜 목적은 매일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은혜의 원천을 소유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하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신나는 광야생활인가?

광야만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곳에…” 하며 원망이 되지만 그날의 만나를 보면 “아! 하나님은 역시…”하는 감탄과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 믿는다.

Until Jesus Returns

“We cannot stop the calling we have received through the cross”

The 2nd Pastoral Ministry Seminar

- When: August 20, 2016, 8 AM to 4:30 PM
- Where: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Registration: \$20 (Those who are on sabbatical or are preparing to begin pastoral ministry can have this fee waived.)
- For whom: Pastors of immigrant churches, church planters, seminarians praying for a ministry context, lay leaders of local churches

Morning Seminars



Main Speaker
Rev. Kisup Kim
(LA Sarang Community Church)
The associate pastoral role is a valuable ministry



Main Speaker
Rev. Seung John Lee
(President of Shoulder to Shoulder Ministry International)
The exit of the immigrant church ministry



Main Speaker
Rev. Dr. Scott A. Lemenag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lerk of Standards and Credentials, Evangelical Church Alliance
God's calling and anointing of the pastor

Pastors in the ECA are evaluated on their ministries each year through reports. Those who currently do not have their pastoral rights due to an inability to submit such reports are also welcome to attend.

Afternoon Seminars



Rev. Kenny Kim
(Santa Monica Korean Church)
Campus ministry is not just commitment, but sacrifice



Rev. Songsik Kim
(Coordinator of church planting in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Church planting and registration



Rev. John Min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Pastoring your family is also important



Rev. Chinyong Cho
(Hanwoori Presbyterian Church of Riverside)
The ministry of the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pastors



Rev. Esau
(Church on Pearl, IFNV)
Multi-ethnic ministry and food banks



Rev. Joseph Sung
(Somang Presbyterian Church)
Sunday school must thrive in order for the church to thrive



Rev. Heimoon Lee
(LA Church of Joy)
A church that evangelizes



Rev. Sang S. Shin
(Head of academic affairs at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The relevance between the church and the denomination



Rev. Peter Kim
(Hyo Sarang Mission)
Ministry to the elderly in the church



Rev. Stephen Feinstein
(Major in the U.S. Army)
Military chaplaincy



Rev. Joseph Choi
(Captain in the U.S. Army and Hospital Chaplain)
Hospital chaplaincy



Rev. John Lee
(All Nations Church)
The missional church

RSVP required for military and hospital chaplaincy seminars.
Attendees may select up to 3 of the 12 afternoon seminars.



10일 오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주최 '제8회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2부순서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하나됨으로 복음통일 이루자”

제8회 장로교의 날…감리교회·성결교회 등의 지도자들도 참석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등 한국개신교계가 다가오는 통일시대, 복음통일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백남선 목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주최한 '제8회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과, 통합,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들이 함께 부동켜안고 회개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또 형제교단임을 자부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를 대표하는 총회장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모두 이 모습을 지켜봤다.

1부 개회식, 2부 예배 및 성찬식, 3부 비전·축하·하나됨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대회장을 맡은 백남선 대표회장은 개회사

를 통해 "이제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제8회 장로교의 날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되며 민족의 복음통일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번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자"며 "특히 우리 장로교가 복음통일을 주도해 가자"고 말했다.

예장 합동 박무용 총회장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벧후 3:11~13)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오늘 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세우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복음으로 무장해 평화통일을 이루는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장면은 단연 성찬식이었다. 예장 통합 채영남 총회장은 "오늘 고신, 기장, 합동, 통합 총회장님이 다 오셨다. 모

두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말하자 단상으로 올라온 해당 총회장들은 "주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며 뜨겁게 기도한 후 '서로 안고 목을 어긋맞기며' 뜨겁게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마지막 순서인 <비전·축하·하나됨> 시간에는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적 소명과 비전' 및 실천강령을 도선포했다.

한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한국장로교의 정체성회복과 장로교연합과 일치를 목적으로 지난 1981년 예장 '통합·합동·고신·기장·대신' 5개 교단을 시작으로 출범해 이후 백석·호현·합신·합복 등 장로교단들이 기입해 현재 23개 교단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15개 상임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가 산하기관으로 활동중이며, 2009년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탄생일인 7월 10일을 '장로교의 날'로 제정해 매년 지키고 있다. 장세규 기자



예장 합동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목사는 동성애자 교회서 추방 가능”

예장 합동, 헌법개정 논의…헌법에 현실반영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예장 합동이 목사가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 정치 및 권리장전 조항을 만든 이유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 보장"을 들었다.

제2장 '교회'에 제6조 '교회 재산'에 대한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교회 설립을 노회에 신청할 시 지교회 재산을 교회 명이나 종회 유지 재단 명의로 기입등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삽입 이유로 △사유재산 등기 금지 △공교회성의 거룩성 회복 △성도의 신앙생활 보장 등을 꼽았다.

먼저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짚었다. 김진영 기자

“교회와 정부가 함께 '다음세대' 육성”

예장 합동…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업무 협약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이 12일 서울 대치동 합동 총회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창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설교한 박무용 총회장은 "청소년 문제는 교회학교 점점 힘을 잃고 특히 농어촌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교회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은경 이사장은 "청소년 문제에 교회가 나서 주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자 '고마워요'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회와 함께 이 운동을 펼친다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합동측 교육출판국장 노재경 목사는 "신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교회와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집회 모습. ©에스더기도운동

도제목들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저녁엔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을 동성애를 막아서는 데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미국에서 다음 세대의 가치관 정립과 성경적 세계관 실현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TVNext 공동대표인 김태오 목사와 새라 김 사모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세계관 전쟁에 대해 전했다.

셋째 날 7일에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최상일 목사가 "안티 기독교"의 정체를 분석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그들의 대중 선동 전략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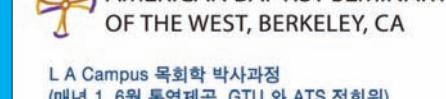
셋째 날 저녁집회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 한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은 2000만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김은애 기자



박무용 총회장과 신은경 이사장(각각 오른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등 협약식에 참석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학회원, 회생학회원(Div), 상담학회원, 선교학회원, ESL, TESOL

• 특별정부 승인 20~22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사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박학당 김은경 목사 TS(213)407-4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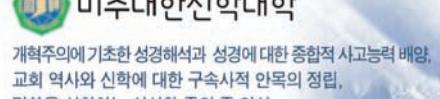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충실히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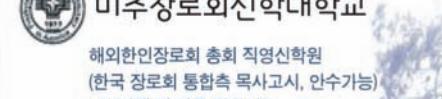
믿음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김은애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빌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슬로몬대학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신학(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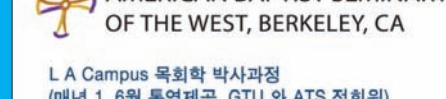
연방정부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특전: 20~27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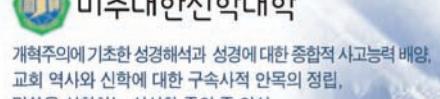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신학(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신임 담임목사 클레이튼 킹 목사(왼쪽)와 해고된 페리 노블 목사(오른쪽). © 뉴스프링교회

“알코올 남용으로 해임된 목사” 뉴스프링교회 페리 노블 목사 해고…후임에 청년사역자 클레이튼 킹 목사 임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대형교회인 뉴스프링(NewSpring Church)교회를 이끌어왔던 페리 노블 목사가 해고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뉴스프링교회는 이날 “노블 목사는 알코올 남용을 비롯해 일련의 불행한 선택과 결정들로 인해 해고됐으며,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프링교회 세인 뉴웨이(Shane Dufey) 행정목사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결정은 지금 까지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몇 달간 그를 돋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그는 “페리 목사를 해임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페리 목사는 교회 앞으로 남긴 성명에서 “이번 소식이 ‘농담’이길 바란다”면서 교회 앞에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그리고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페리 노블 목사가 설립한 뉴스프링교회는 예배 인원 3만여 명의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한편 페리 목사 후임으로는 크로스로드월드와이드 사역을 이끌며 청년사역을 중점적으로 해 온 클레이튼 킹(Clayton King) 목사가 선임됐다.

강혜진 기자

“무신론자도 기독교인으로 바뀔 수 있어”

빌리 그雷합 목사…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빌리 그雷합 목사
©빌리그雷합전도협회

빌리그雷합 전도 협회의 대표인 빌리 그雷합 목사는 최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며, 무신론자의 마음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 래합 목사는 ‘열렬한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나에게도 무신론자인 친구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 상상할 수 없다. 열렬한 무신론자를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신론자 역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면 분명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雷합 목사는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생각과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다.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 보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雷합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긴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산다”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발견해야 할 점이다”라고 말했다.

장소피아 기자

“Why 댤러스 총격과 같은 비극?”

문화비평가 에릭 메탁사스…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강조

에릭 메탁사스
©크리스천포스트

지난 7일 댤러스 경찰관들이 총격으로 숨진 가운데,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문화비평가인 에릭 메탁사스가 “이 같은 폭력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댈러스에서는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발생한 총격으로 백인 경찰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에릭 메탁사는 최근 국제기독연대(ICC)가 박해받는 교회들을 주제로 개최한 ‘더 브릿지’(The Bridge) 컨퍼런스에 주발제자로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많은 무신론자들과 비신자들은 회의론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과 함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좋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 같은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시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메탁사는 총격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본질적인 내용은 많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찰관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잠자히 있

강혜진 기자

교회 및 선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은이 예배 오후 2:22 모전 6:20(토)
주일 바질중학교 토요시내 - 17와 버몬트 코너
주중세내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제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연제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박영천 담임목사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박현성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신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아천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45

2128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중고등부 수요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정우성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EM 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점은이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박현성 담임목사

김경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EM 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점은이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mc.us

주일예배 오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도모발달부 모임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김요섭 담임목사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김영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김요섭 담임목사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mc.us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정운수 담임목사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점부 베네핏 진단)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산부 미디칼

gka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류종길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예배 오후 7:30

정운수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3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909) 268-4279 / gwachurch.org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공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예배 오후 10:30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화-금) 오전 6:00
새벽예배(화-금) 오전 1: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7:3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한자들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상관) 금요예배 오후 7:00
오후 11시 (본관) 보일OT 월~금 9:30~6:00
본관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상관: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록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증보기도일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10: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50
금요성도대명회 오전 7:20
EM예배 오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집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부 예배 오전 11:00 Awana 유통 8:00(금)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봉사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배(화-금) 오후 5:30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개장을 하루 앞둔 6일, 관계자들이 리본 커팅식을 가졌다.
© 앤서스인제네시스

“실물 크기 노아의 방주 건조”

200억 이상 투자해 켄터키 주에 테마파크 개장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테마파크가 6일 공식 리본 커팅식을 가졌다.

미국 켄터키 주 그랜트카운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7천 명이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앤서스인제네시스(Answers in Genesis)의 대표이자 창조박물관장인 켄 햄(Ken Ham)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은 매우 빠르게 세속화되고 편향되어 간다. 기독교인들이 이 만한 규모의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라면서 “방주는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키는 존재로 서 있다”고 했다. 또 “이것이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길이 약 155.4m, 높이 15.54m, 폭 25.9m 크기의 이 방주를 짓는 데는 1,800만 달러(약 20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충당됐다.

아크 인카운터(Ark Encounter)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 이날 행사는 연주, 기도, 성경 읽기와 함께 리본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월리엄스 타운의 리처드 스키너 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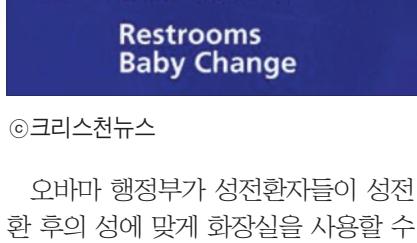
아크 인카운터와 공동으로 테마파크를 건설해 온 스키너 시장은 “우리는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도시, 국가, 그리고 방주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아크 인카운터와 이들의 상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앤서스인제네시스 공동창립자인 마크 루이는 “오늘 모인 여러분 7천여 명은 매우 아름답다. 동일하게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라며 이를 소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올해 140만 명 이상이 이 테마파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性)전환 화장실법에 반기든 주 추가돼”

네브라스카 등 10개 주에서 추가로 오바마행정부 고소해



©크리스천뉴스

오바마 행정부가 성전환자들이 성전환 후의 성에 맞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지침서를 내린 것에 항의해 추가로 10개의 주에서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최근 크리스천뉴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네브라스카, 일간 사스, 캔스اس, 미시간, 몬타나, 노스 다코다,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다, 와이오밍 등 10개의 주에서

이영인 기자

“동성애 반대해 설립된 ECO 급성장”

동북노회 3개로 분립 추진…관료주의 지양하고 각 교회들 중심으로

미국에서 2012년에 설립된 보수적 장로교단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곧 한 노회를 3개로 분립할 예정이다.

장로교복음주의연약회(ECO)는 동북 노회를 3개의 노회로 분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동북노회는 북으로는 메인주까지, 남으로는 텔리웨어주까지, 서로는 펜실베이니아주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ECO 행정간사인 다나 S. 에일린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노회 설립은 과도한 관료주의를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에일린 목사는 “우리의 조직은 노회들이 이 각각 10~20개의 교회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노회들은 하나의 큰 노회보다 더 좋은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요구들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노회들이 관료주의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노회들이 각 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현재 동북노회도 32개 교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립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노회들이 원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노회들이 각 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현재 동북노회도 32개 교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립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12 플로리다 대회’ 선언문은 “ECO는 교회 성장과 개척, 그리고 지도자 양성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교인협의회’ 산하 교단”이라고 천명했다.

강혜진 기자



지난 1월 13일 PCUSA와 결별한 산안토니오 제일장로교회.

©크리스천포스트



세션에 참석한 각 교단 대표들. ©에반젤리칼포커스

“분열의 세월은 5백년으로 충분”

뮌헨서 ‘에큐메니칼 회의…신구교 300여 교단 지도자들 “화합 가능하다”

개신교와 가톨릭 간 연합 도모 위한
에큐메니칼회의 ‘투게더 인 유럽’이,
300여 개 교단 1,700여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뮌헨에서 개최됐다.

6월 30일~7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침례교,
오순절 등 다양한 교파의 지도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만남, 화해, 희망’을 어떻게 이룰지 논의했다.

강사로는 독일 가톨릭교회 발터 카스
페 추기경, 독일복음주의교회위원회
인리히 베드포드-스트롬 회장, 독일복
음연맹 하르트무트 슈티브 총무 등이
나섰다.

이번 회의를 후원한 프란치스코 교황
(로마가톨릭)과 바르톨로뮤 1세(동방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영상 메
시지를 보내왔다.

주최측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화합에 기여
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연
합과 화해의 간증을 통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대종, 민족, 사회
적·문화적 집단 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결정적이고
고도 희망찬 ‘그렇다’는 응답으로 격려
한다”고 전했다.

“분열의 세월은 500년으로 충분하다.
화합은 가능하다”라는 기치 아래 열린
이번 회의는, 약 5천 명이 참석한 야외
집회로 마무리됐다.

독일YMCA 지도자 게르하르트 프로
스는 “유럽 기독교인들의 분열은 영원
히 아물지 못할 상처가 아니다. 500년
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영개혁교회(URC), 동성결혼 허용”

지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동성결혼 장소 제공과 주례 허용

‘영개혁교회’(The United Reformed Church, 이하 URC)가 지교회와 목회자
들에게 동성결혼 장소 제공과 주례를 허
용하기로 했다.

URC는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에서 열
린 정기총회 도중 투표 결과 찬성 240표
반대 21표로 이같이 결의했다. 교단 내
교회들 절대다수가 동성애에 우호적 입장
인 보인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URC는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 URC는 재작년과 작년 6월에 총
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교단이 지교
회들에게 단일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URC 존 프라터 총무는 “오늘 URC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를 일각에서
는 기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결혼식을 찬

성하거나 반대하는 교회들 모두 교단의
일부”라며 “이것은 우리 교회 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결정을 내리
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서로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URC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다른 교단들에도 영향
을 줄 전망이다. 영국침례교연합은 “해
당 교회가 원한다면 목회자들이 재량껏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있고, (교단이)
그것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연
합감리회는 결혼을 ‘재정의’하는 보고서
를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다. 영국성공회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
을 조정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에도 불구하고 요크에서 곧 회의를 열
예정이다.

“푸틴, ‘종교자유제한’ 反테러법 서명”

가정교회와 전도 제재…현지 교계 우려, 7천여 교회 금식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리스천포스트

러시아 블라디
미르 푸틴 대통령
이 반(反)테러리
즘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종교
의 자유를 심각하
게 제한하는 내용
이 담겨 있는 것으
로 알려져, 교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
이다.

카리스마뉴스의
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테러리즘으로 간주
되는 개인적 행위와 대중의 불안을 아
기시키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
르면, 이 같은 범죄를 알리지 않은 경우
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러시아 당국에게서 취
업 허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 방문자
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 △러시
아 밖의 친구나 친척들이 여러분의 집
에서 신앙을 나눌 경우에는 벌금을 물
고 추방당한다 △비신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토론’은 모두 선교활동
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정
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은 선교활
동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정부
의 허가 없이 열차 여행 중 전도할 경
우, 그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경찰서에
서 보호 조치를 받고 5만 루블(약 9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인 가정에
서의 종교 활동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

라고 말했다.

하우카 회장은 “러시아의 새로운 법
안은 전체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목적과 상충된다”며 전 세계 교회와 교
인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요청했다.

강해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 11:00AM
주일예배 주일 11:0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대체예배(이어폰) 주일 2:00PM NEXT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시역훈련) 회·목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김영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예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예배(전철아이배) 8:00pm
사복예배 (월~토) 5:00am (금)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성경예배 7:00pm

김 담임목사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장아리예배 오전 7:30

장아리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경부 오전 9:30, 11:30

한국어성경부(이어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성장을 다리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도서제작부 예배 오전 5:00 설기축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부 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민경업 담임목사

중고등부 예배 8:00
한국학교 예배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유아부 예배 11:00 대학부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691-0691 F. (562)691-0698 / nachimban.org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gfc.com

김일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유아부 예배 11:00 대학부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하구암 담임목사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802-4959 C. (714)308-7038 / usa8291@gmail.com

하구암 담임목사

주일예배(E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고등부 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새벽 5:30am
(영어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교육부 오전 11:30

세부예배 월~금 오전 5: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교육부 오전 11:30

세부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새벽예배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은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이서 담임목사

2부주일 예배 오후 10:00 1000금 공요부 저녁 8:00 본당

3부주일 예배 오후 1:30

권혁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교육부 오전 11:30

세부예배 월~금 오전 5:30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현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예배 오전 11:00 힐어부 새벽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이동준 담임목사

Children(1-6) 오후 11:00

금요일(2-6) 오후 8:00

Youth(7-12) 오후 1:00

College 오후 1:00

김현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후 11:00

Children(1-6) 오후 11:00

<p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세누림

2016 미주목회자 **십자가의 도** 목회자세미나 초청의 글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지난 1년 8개월동안 한국교회 1천여교회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26개국의 선교사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세누림] [예수님의 기도학교] 전국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펼쳐 가실 목회현장이 오직말씀, 오직기도, 쉽고가볍고 재밌는 행복목회,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돋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십자가의 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십자가의 도”** 세미나에 오신다면,

하반기 목양은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신앙, 말씀신앙, 교회사랑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것이며,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안의 영적분위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불같이 살아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의 목회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되어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한 목회를 누리게 될 생생한 은혜의 현장에 목사님들과 사모님, 선교사님, 신학생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도 목차 |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목하라!

제 1과 오직 십자가의 도만 주목하라!

제 2과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라!

제 3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제 4과 십자가의 보혈만이 해답이다!

제 5과 반드시 예수님의 피여야 한다!

제 6과 당신도 죄인임을 주목하라!

제 7과 회개, 방향의 전환이자 성화되어 가는 길이다!

제 8과 회개 없는 당신의 결국은 멸망이다!

제 9과 십자가, 예정된 길이었음을 주목하라!

제 10과 십자가, 시기와 배신의 합작품이었다!

제 11과 십자가, 그 왕따의 현장을 주목하라!

제 12과 십자가, 그 치욕의 현장을 주목하라!

제 13과 십자가, 반드시 당신의 몸으로 져라!

제 14과 그 위에 흐르는 용서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라!

제 15과 십자가, 그 위에 흐르는 사랑을 주목하라!

제 16과 십자가,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만 질 수 있다!

제 17과 십자가, 오직 인내로만 질 수 있다!

제 18과 십자가, 오직 자기 죽음의 길이다!

제 19과 십자가, 반드시 통곡과 피땀을 동반시켜라!

제 20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세누림**』

2016 미주목회자 **“십자가의 도”**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6년 7월 18일 (월) - 7월 20일 (수)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강 사 : 이영환 목사 (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

장 소 : Bethesda University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등록비 : \$ 30.00 (Pay to Order “UBMC”)

* 주교재와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등록방법] 인터넷 : UBMCHURCH.COM

전 화 : 714-634-8360 / 714-535-3511

문 의 : 714-535-3511 / 714-634-8360

714-587-0033

이메일 : USA.SONSHIP@GMAIL.COM

주 죄 : 미주 장자권 세미나본부

현 죄 : Bethesda University / 베데스다 수복목교회

브렉시트를 통한 영적 교훈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을 극복하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요즈음 세계의 관심은 온통 브렉시트에 대한 것이다.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핵을 225기나 가지고 있는 영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동구권 노동자들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영국으로 망명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중동의 난민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분리를 꿈꾸는 수많은 종족들도 때는 지금이라는 식으로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영국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인권이 잘 보장돼 있고 이민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리에 도착한 난민들이 다시 영국으로 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영국에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후배는 영국에서 극빈자들에게 혜택이 좋다고 한다. 지난한 자에게 그만큼 좋은 대우를 하는 나라가 구리파에 별로 없지 싶다. 그러기 때문에 영국은 난민들의 로망이다.

또한 중동이나 아시아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영국에 투자한다고 한다. 고로 영국은 생산품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계속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는 한 채에 보통 100만 파운드 내지 200만 파운드가 되어, 샐러리맨들은 내 집 마련을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집이 나오면 중국인들

이 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사들인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부의 부인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민자들까지 물밀듯 밀려오니 노인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자신의 '파이'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나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고민이다.

컬럼비아대학 교수인 제프리 삭스는 이민자, 소득 격차, 무기력한 EU가 브렉시트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구촌 각처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센전 조약으로 EU에 국경이 없어진 바람에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국가로 물밀듯 이주하고 있다. 그들은 값싼 인건비를 받고 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한다. 그러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좀도둑, 강도 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삶이 점점 척박해지고 있는 것이 유럽의 실상이다. 로마에서는 이미 감독이 만원이기에 웬만한 좀도둑은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양산되고, 그들은 매우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이미 오래 전에 예언하고 있다(딤후 3:1-2). 말세의 현상 중 하나가 사람들 간의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경고한 것이다.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다. 경쟁에서 패한 사람은 무능력자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치부된다. 고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성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오직 성공한 사람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여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면, 그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음을 의미한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갑자기 큰 교회가 생길 때 그로 인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 닫게 되는 실정이다.

상식이지만 현재 세계 인구의 1% 미만이 전 세계 부의 50-6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성공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양산되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언젠가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초래된다. 프랑스의 혁명이나 히틀러의 등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고, 심수년 전에 일어났던 LA폭동도 하나님의 예가 될 수 있다.

히틀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제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한 독일의 배상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은 인플레이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여서 마르크 한 자루를 주어야 빵 몇 개를 살 수 있었다. 고로 가난한 시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히틀러가 등장했다.

저들은 이방인인 유대인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이방인들이 우리 고혈을 빨아먹는 존재라고 여기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구라파 거주 유대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벌써 3450년 전에 희년 제도를 주셨다. 지난한 이웃의 집이나 땅을 샀을 때, 49년 동안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50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 주는 아름다운 제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폐자 부활전을 도모하도록 섭리하셨다.

나는 개인적으로 희년 제도에 대해 친척을 예로 들어 생각한다. 할아버지는 지주였고, 자녀들은 잘

살다가 6.25전쟁으로 똑똑한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쳐절한 가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그리고 무려 100여 년 동안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구약의 제도가 적용된다면 그분도 소망을 지니게 되지 않을까 싶다. "50년만 기다리자"라고 말이다.

가톨릭교회가 금년을 희년으로 지키고 있다. 모든 성당들이 보통 때는 굳게 닫아 두었던 오른편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진정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적 희년이요 물질적인 희년이 아닌가 한다. 그 제도야 말로 인간의 부패하고 끝간 데를 모르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경의 희년 제도를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때 세상은 정치적으론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몽기총, 이·미용 통한 몽골 복음화에 적극 기여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대표 김동근 장로, 이하 몽기총)가 주최하고 월드뷰티핸스(대표 최에스더 교수)가 주관해 몽골은성교회(담임 옥현정 목사)에서 이·미용 봉사를 통한 선교를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몽기총 산하 은성교회 교인들과 한국의 월드뷰티핸스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김동근 장로를 중심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많은 이들을 결신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특히 이들은 이·미용을 통한 효과적 몽골 복음화를 위해, 몽골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센트럴타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현지인 수료자는 "한국의 발전된 뷰티산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 관련 숨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월드뷰티핸스가 몽골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 회사인

UNEQ(대표 장글마)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진출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몽골경제발전연합회(회장 이현구)와 몽골-한국경제지원협회(회장 김동근 장로)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김동근 회장은 "선교적 차원에서 국내에 믿음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계약 체결은 월드뷰티핸스에게는 몽골로 진출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몽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심었으면 한다"면서 "뷰티산업을 배우는 데 대해 몽골의 주요 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의 월드뷰티핸스는 몽골에 WBH SHOP 개설권을 갖게 됐으며, 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하게 됐다. 관련 교육의 경우 몽골 세루렉 대학 등의 학생들을 비롯한 현지인

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번 이·미용봉사에서는 몽기총과 몽골경제발전연합회를 비롯한 현지 기업 및 대학 등이 숙식과 세미나 장소 및 이동 버스 등을 제공했다.

한편 몽골 최대 기업인 ESTO(회장 바트 자르갈)와 몽골경제발전연합회, 몽골한국경제지원협의회, 몽골산업공단(사장 저륵트)은 몽골 건축 인테리어 자재 협작을 위한 협약식도 가졌다.

이대웅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여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홀스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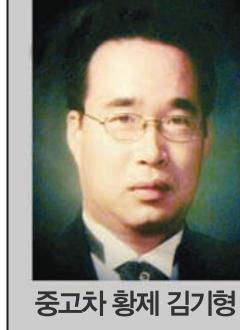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넷
전도용품 및
CD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경배너 스텐드포함 \$65 (봉투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팀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선도님들의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맞춤형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선도님들께서 성기사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송, 각종 연예, 현수막, 각종 시인(설내외, 차량) 제작, 환율을 통해 전문

junimmedia.com

제작과 함께 환율, 환율을 통해 전문

유대인과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1)

◆왜 유대인은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 되고 있는가?

지금은 은퇴한 모 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는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았다. 이스라엘 땅이 '성지'(holy land)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고 아직도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 땅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여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선교학자로서 갖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며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장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어떤 전공 분야이든, 학자라면 표면적인 인상 내지 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선교와 관련해서라면 굳이 선교학자가 아닐지라도 신자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복음 전도의 대-위임명령(Great Commission) 앞에서, 정작 복음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이유를 캐물어 보는 진지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유대인은 약 1600만 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610만 명 정도다. 이 중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소위 '메시아니 쥬'(Messianic Jew)의 숫자는 약 31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스라엘 내에는 1만 5천 내지 2만 정도의 메시아니 쥬와 약 250개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의 비율은 1.9%, 이스라엘 내에서는 0.3% 정도다.

복음이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며 사도와 2세기 초까지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대인이었으나, 이상에서 보듯이 유대인 복음화율은 지극히 저조하다. 선교학적으로 2%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진 종족을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으로 부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은 미전도종족 중의 미전도종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 복음화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심령이 강한 백성이기 때문인가?

◆유대인들의 영적 우둔

유대인 복음화율이 저조한 일차적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전 민족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알고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전 1세기 전후로 유대 대중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사

야서 53장에서 예언된 '죄에서 구원하실' 종교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왕적) 메시아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찬란한 다윗 제국을 재건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외세에게서의 해방)에 메시아를 맞추고 있었기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읽어내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노중에 '누가 곧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란 문제로 다투었다(막10:3541, 마20:2024)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시점에서조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1:6)라고 물을 정도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통한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의 눈을 가렸던 모든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물며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에 눈이 멀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일반 대중의 영적 소경됨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영적 개안(開眼)의 길-'시기' 캐 하라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 소경이었다. 그는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 이었다(롬11:11~14).

그러면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룰11:11의 '시기나게'

에 대한 헬라어 '파라겔로사이(παραγγιλοσα)'는 '시기나게 하다, 질투나게 하다'는 뜻을 지닌 '파라겔로오(παραγγιλω)'의 부정사다. 이는 유대인들의 눈에 개와 같이 부정한 존재로 보였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영적 복을 누리는 되는 놀라운 변화를, 유대인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부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유대인들도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다른 아닌 그들이 버렸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 눈이 열리



정연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구약학(유대학)

게 된다. 그것이 바울의 '시기나게 함'이란 표현에 담긴 유대인 구원의 비밀이었다. 이는 바울의 간절한 자기 동족 구원의 열망-그의 열망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는 롬9:3에 잘 나타나 있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 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롬11:13).

◆자금하지 말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가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고후11:24 이하) 온갖 환경적인 어려움(강, 바다, 광야 등)과 사람들(동족, 이방인, 거짓 형제들)의 어려움과 주위와 배고픔과 옥고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은, 이방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동족 구원의 열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그것은 '자금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인간은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죄성의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유대인 덕분이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너무나 저질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잘난 척하고 교만할까 봐 "자금하지 말라"(롬11:18)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건만, 돌감람나무 옆던 이방인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참감람나무요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반-유대주의(Anti-Semitism)

굳이 '안티-쥬대이즘'과 '안티-세미티즘'을 구별한다면, 전자는

유대인에 대한 종교적 편견과 증오를, 후자 인종적 차별과 편파를 의미한다. 그러나 '반유대주의'가 '안티-쥬대이즘', 즉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의 종교적 편견에서 출발하였지만, 종세에 이르면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편파으로 이어져 사실상 '안티-쥬대이즘'과 '안티-세미티즘'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의 빌헬름 마르 이후로 '반유대주의'는 일 반적으로 '안티-세미티즘'이란 용어로 표기되고 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금하지 말라'고 했던 예언적 경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서구교회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의 '반유대주의', 즉 신학적 편견과 미신 숭배, 그리고 편파의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저주의 이름' '원한의 이름'으로 각인시키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장벽을 만들게 된다.

◆반(反) 유대주의라는 역사의 철로

2014년 11월 『기독교와 반(反)유대주의』 과목의 현장학습으로, 학생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수용소를 찾은 적이 있다. 수용소로 들어가는 철로 위에서, 나는 연합군 수뇌들이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당신들은 왜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이 철로들을 폭격하고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소?"

아우슈비츠에서만 100만 명의 유대인이 소각장의 연기로 사리쳤다. 아우슈비츠로 들어오는 철로들을 끊었다면 최소한 그들이 사이를 끈 가스에 집단학살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철로를 끊는 것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연합군 수뇌들의 뇌리 역시 유대인들은 '사악한 존재'라는 반유대의식으로 차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역할을 하는 범죄자들"이란 신학 체계를 만들어낸 교회 교부들, 그리고 이런 신학 체계를 더 세련되게 강화시킨 종세의 신학자들, 종세의 잘못된 신학을 거부하면서도 반유대주의만은 극복하지 못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이 2천 년 교회 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해 왔다. 서구교회 사람들이었던 연합군 수뇌들 역시 반유대주의로 점철된 서구교회 역사와 문화에 속해 있었기에, '(폭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미필적 고의'의 죄악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 어떤 가치관이 뇌리에 찬나 인간은 가치 판단의 존재이다. 인간이 생각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존재라는 측면은, 단연코 동물과 다른 인간됨의 우선 특징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어떤 가치들을 습득하였느냐에 따라 동물 이하의 참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순적 존재 또한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 판단의 중심에 종교가 있다. 유사 아래 종교는 인간의 사회문화적 삶의 핵심 요소였다. 이는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가치 판단의 요소라는 말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인류에 대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가치와 제도의 측면에서 종교라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절대 진리로서의 예수님이 제도화된 종교인 기독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한다. 그 여부는 교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 주느냐에 달렸다.

1978년 가이아나의 정글에서 912명의 미국인들이 집단 자살하였다. 집 존스의 시한부 종말론에 세뇌된 결과였다. 이는 물론 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세뇌된 극단적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소위 정통 기독교의 주류에서도 그런 유사한 세뇌가 가능할까. 정통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한 민족에 대해서 혐오적이고 미신적이며 적대적인 가치관을 수백 년간 계속 주입한 일이 있었을까. 신을 죽일 정도로 지독히 악한 존재요, 미귀요, 버러지 같은 존재요, 인류에게 사악한 일만 조장하는 존재요, 크리스천들의 피를 뺏아먹는 존재요, 돼지의 젖이나 뺏아먹는 더러운 놈들이라는 등. 만화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비열한 가르침들이 거룩한 교회에서도 가능한 일이었을까. 거룩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지금도 장중한 서구교회의 벽에 베젓이 붙어 있는, 돼지 젖을 빼는 '유덴자우'(Judensau=유대인 돼지)의 부조. 믿고 싶지 않은 역사적 사실 앞에 살이 떨린다. 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신학, 그런 가르침, 그런 미신, 그런 가치관, 그런 주약한 인상이 1700년 동안 서구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해 왔다.

나는 연합군 수뇌들의 뇌리에도 그런 편견들이 비껴가지 않았으리라고 감히 상상해 본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c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칼라
카피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대형교회의 선교 책무

김진봉 | 두란노 | 540쪽

이 책은 2015년 제3회 KGMLF를 통해 발표되었던 발제문과 논평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대형 교회의 선교 책무'를 논의한 제3회 KGMLF에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북미, 남미에서 77명이 참석하여 14가지 부주제를 다루었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교회 간에 선교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교회가 나아갈 선교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지침서이다.



터프 토픽스

샘 스톰스 | 새물결플러스 | 488쪽

이 책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난제 25가지를 선정하여 무릎을 탁 치게끔 하는 명답을 제시한다. 의심과 질문을 사장시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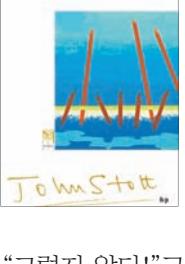


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뿐더러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확신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길 원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개정판)

존 스토트 | IVP | 584쪽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는 호소력을 잃고 있고, 기독교가 시대와 동떨어졌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정말 기독교는 시대와 함께 걸을 수 없는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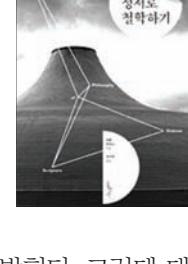


교인인가? 존 스토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 책을 통해 '현대적인 기독교가 실재함'을 보여 주겠다고 밝힌다. 그리스도인이 고수해야 할 복음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맺는 연관성을 규명한다.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

요람 하조니 | 홍성사 | 346쪽

이 책은 구약성서 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구약성서가 신의 계시를 기록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종종 자신들의 생각이 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성인은 구약성서를 이성적인 저서로 여기길 거부한다. 이 책은 새로운 해석틀을 사용해 2천년 동안 숨겨져 있던 구약성서의 진면목을 밝혀내고 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통해서만 오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 척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너나없이 진실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고는 진실할 수 없다. 자신의 몸부림과 의심과 실패에 대해 온전히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다.

이 책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더 정직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 목적은 온전히 진실한 삶, 가식과 기면을 벗어버린 삶, 자신만의 고유하고 흔치않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이 정의하는 진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의 창조자께서 정의하시는 진실한 삶 말

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에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는 데 이곳이 낫다면, 이제 척하기 그만둘 때다.

진실함이 손해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그는 진실에 기초한 삶으로 우리를 당당히 이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되찾고, 영혼을 되살리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또한 '척하기'와 함께 오는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두려움이 아니라 투명함이 특징인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사소한 거짓을 버리고 자신에

게 솔직하기(진실하면 손해 볼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 2. 뒤돌아보

지 말고 한눈팔지 않기(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변화의 의지를 보여라) 3. 외톨이 생활 청산하기(얕은 관계가 아닌 깊은 관계를 만들어라)

4. 그러나에서 벗어나기(친구에게 자신이 빠진 뒷에 대해 알리라)

5. 용서하고 기억하기(날마다 진정한 용서를 연습하라) 6. 관계에서 진실하기(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말라) 7. 경쟁에서 벗어나기(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8. 필여적인 갈등 헤쳐나가기(지적을 사랑과 응원으로 감싸라) 9. 두려움 극복하기(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10.

확신을 갖고 진실하기(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심치 말라).

저자 릭 비젯(Rick Bezet)은 아

칸소 주에 자리한 뉴라이프교회의 설립자이자 담임목사로 '아칸

소 주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뉴라이프교회는 2001년에 콘웨이에서 문을 연 후, 7

개 도시에 8개의 지교회를 두며 급 성장했다.

또한 그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도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비전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

현재 ARC(Association of Related Churches)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전화 1-877-580-2424 색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박의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북스리뷰]

“서평을 쓰기 싫은 책, 서평을 쓸 수 없는 책”

상처입은 자들과 일구는 복음의 공동체

서평을 쓰기 싫은 책이 있다. 이 책이 그렇다. 서평을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책이라는 말이 아니라, 서평을 쓰기에 내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이 글은 서평은 아니다. 굳이 이 글의 성격을 말한다면 ‘나의 변명문’이라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 있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순수하게 재미 자체를-재미이건 기분 전환이건-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지식 습득을 위해서이거나-그것이 주요 영역이든 지엽적 영역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내겐 이런 지식욕이 있다. 비록 공부를 싫어하고 게으르지만 말이다. 무언가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나쁜 습관(?)이 있다.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무딘 심령과 삶 또는 영적 측면에서 도전을 받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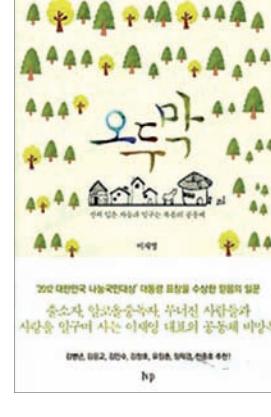
그런 측면에서 서평을 쓰면서 내가 읽은 책이 어떤 재미를 주었는지, 또는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었는지 돌아보고 비판하게 된다. 재미라도 단순히 흥미적 측면이라면 그 책은 내게 별 가치가 없다. 지식 습득이라도 그 내용이 뜬구름을 잡거나 피상적이고 얕은 지식을 다룬다면 내게는 별 가치가 없는 책이 된다.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세 번째 목적은, 앞선 두 가지 경우와는 조금 달라진다.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감동을 받고 약간의 찔림을 받는 차원을 넘어선다. 종종 이런 유형의 책 중에는 조심히 들어다 보면 과장과 주관적 관점에서만 쓰여, 독자들이 읽을 때 감동은 받지만 정작 내부와 실체적 사실은 책과 상당한 거리가 있거나 왜곡된 경우들이 많다.

예컨대 일부 간증집이라든가 교회 개척 부흥기에 관련된 책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책들 역시 서평을 피하게 된다. 속아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약간의 과장과 주관적 관점이 있더라도, 진정 마음을 흔들고 찔림을 주는 책들도 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그 책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아마 다른 이들도 그러리라. 한 걸음 더 들어가, 책을 통해 단순히 감동받는다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영화나 책을 읽고 감동과 도전을 받지만, 그 차원으로 그친다면 그 감동은 값싸고 표피적



오두막
이재영
IVP | 263쪽

인 것이 된다. 감동만 받고 그 감동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올라갈 때나 책의 마지막장을 덮고 난 뒤에 바로 식어버린다면, 값싼 감동이 되고 말 것이다. 마치 위인 전을 읽고 ‘그 사람 좋은 사람아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감동은 어떤 형태로든, 어느정도 나의 사고와 삶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내가 책을 읽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나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지만, 그것을 좋아하거나 본받기에는 나의 한계와 부족, 자신에 대한 불찰저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큰 감동과 도전에 내게 변화와 삶의 부분을 변화시키고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무의과 한계를 알기 위해 나는 이 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 내가 이 책을 논한다면, 내가 재대로 하지도, 좋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오만을 보이는 것과 같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이재영 장로는 많은 문제와 커다란 실수를 해 가면서 지금의 오두막 공동체를 이끌어 왔다. 저자의 그런 허점 많고 논리적이지 못하며 무모함을 보이는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어리석고 담담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실수와 행동을 한다. 물론 이러한 판단조차 결과론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논리와 이성을 변명 삼아 우리는 저자의 심분의 일, 백분의 일도 행하지 않는 주저함과 뻔뻔함, 계으름을 행하곤 한다. 실수와 넘어짐 등을 통해 저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주의 음성을 민감했지만, 정작 논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더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해 주고, 잘못 나아가면

수정해 준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길의 안내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 길이 맞나 하는 계속적인 의문만 던질 때, 변화는 없다. 하나님은 이 책의 저자처럼 무모하지만 나아갈 때, 그 가는 길을 수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겸비할 때,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그런 점에서 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쓸 자격이 없고, 쓰기에는 일단의 암시가 내게 작용한다.

저자처럼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출소자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논리와 학술적인 접근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의 무기력을 느낄 것이다. 이들에게 논리와 예의를 기대하는 것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1970년대 책이 되었지만 김진홍 목사의 책이나-지금의 평가는 일단 접고 그 당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허병석 목사의 청계천 빈민 선교, 제정구 의원의 빈민 활동에 대한 책을 보면-신부와 벽돌공(제정구, 비전이십일, 1997)-, 그들이 사역할 때 논리나 이성은 상당수 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민선교만이 아니라 어떤 때 목회나 양육도 마찬가지이다. 논리로만 접근할 때 우리는 쉽게 상처 입고 쉽게 지친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아갔기에 그들을 감내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다. 저자의 표현처럼 그들에 대한 이러한 저자의 활동은 이유가 없었다. 그들과 주변 이들에게 미련하게 속고 빤히 바닥이 보이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사업과 활동을 했던 것은, 단순히 저자의 성취욕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의 무모함과 담담한 실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머리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자를 사용하심을 다시 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책의 서평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라고 말하고 싶다. 비록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마르고 굳은 땅에 조금씩이라도 물기가 맺힌다면 그 굳은 땅도 조금씩 변하고, 거기 떨어진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쌩이 나지 않을까?

문양호 목사
크리스챤북뉴스 편집위원

[추천도서]

“다음세대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분반공부로 축소된 기독교교육 가정-학교 생태계 복원 필요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고, 그 중심에 ‘다음 세대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뿐, 대안을 제시하거나 과감하게 실천으로 옮기는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다. 연구소는 최근 14번째 연구신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예영)〉를 통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를 교회학교뿐 아니라 교회 전체, 다음 세대의 부모와 가정, 학교와 공교육을 아우르는 ‘기독교교육 생태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상진 소장은 머리말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는 기독교교육 생태계의 위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교회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목회와 학교의 문제요, 사회에 팽배한 반기독교적 가치관의 문제”라며 “이 위기 극복은 교회학교나 교사들만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선 안 되고, 부모가 변해야 하고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돼야 하며,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 책은 기독교교육 생태계에 대한 첫 서적이 될 것”이라며 “기독교교육이 교회교육으로 축소되고, 다시 교회학교 교육으로 축소됐으며, 다시 분반공부로 축소됐는데, 이를 기독교교육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것은 기독교교육 생태계의 복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책 1장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의 방향: 기독교교육 생태계적 접근’을 직접 쓰기도 한 박 소장은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거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책임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늘날 교회학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성장주의의 패러다임과 숫자 제일주의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한 영혼의 귀중함에 주목하면서 다음 세대에 생명을 불어넣는 교육의



다음세대를 위한...
박상진 외
예영 | 264쪽

질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의 방향으로 ①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라 ②담임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지라 ③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양육하라 ④학교에서도 신앙적 가치관이 이어지도록 하라 ⑤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라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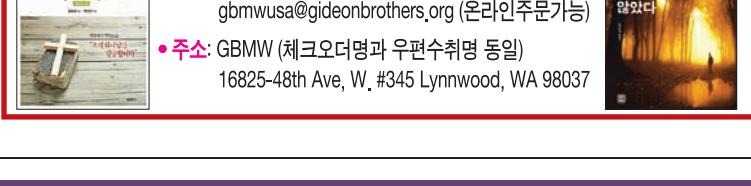
특히 교회학교에서의 양육에 대해 “교회학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가 누구이고 학생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정짓는 것”이라며 “교사는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지금도 ‘교회학교 교사와의 만남으로 인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뤄졌다’는 많은 간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했다.

박상진 소장은 “지금처럼 한국 교회 신뢰도 추락이 계속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교회학교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교회학교 위기가 전 교회적 문제이고 기독교교육 생태계의 문제라면 담임목사가 교회학교를부장이나 교육전도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담임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지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K-Faith': A VBS to Highlight 'Korean-Style' Worship

While most churches follow
'American' VBS curricula,
one church develops its own

BY RACHAEL LEE

While most churches — including Korean ones — tend to feature Vacation Bible Schools (VBS) that follow curricula developed by American churches and organizations, one church in Los Angeles is setting itself apart and hoping to instead focus on 'Korean-style' aspects of worship, including early dawn prayers, late-night worship, and Bible memorization.

Calling it 'K-Faith' (like 'K-Pop'), Pastor Jonathan Lee of Hana Christian Center says he aims to introduce these elements of the Korean church culture through the church's VBS.

K-Faith will be taking place from 3 PM on July 22 to 5 PM on July 23, under the theme, 'Comrades of Faith.'

For the past 18 years, Hana Christian Center has developed its own programs and curriculum hoping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Korean Americans.

The church's VBS this year takes inspiration from two things:

the Bible story o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and a Korean game show called '1 Night, 2 Days.' K-Faith will focus on giving children an experience of living in community and building camaraderie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the body of Christ.

K-Faith will also feature student leadership, as students who have attended previous VBS programs with Hana Christian Center will serve as small group leaders and mentor younger students.

Friday nights will feature late-night worship sessions, and on Saturday morning, children will wake up early for dawn prayer. To eat, children will have to memorize Bible verses and receive meal tickets. Attendees can also expect other fun aspects such as games, campfires, and late-night snacks.

This year, Hana Christian Center will also be partnering with LA Vision Church to host the VBS as a joint effort. Registration is fre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213-399-7162.



Pastor Jonathan Lee preaching to children around a campfire during last year's VBS. (Photo: Hana Christian Center)



Pastor Joshua Lim currently serves as one of Family Chapel's associate pastors. Family Chapel is the English ministry of Oriental Mission Church.

Oriental Mission Church's New English Ministry Associate Shares Hopes

BY RACHAEL LEE

Family Chapel, the English ministry (EM) of Oriental Mission Church, has brought on Joshua Lim as its new associate pastor earlier this month. Lim, who preached his first sermon as associate pastor on July 3, will be working alongside Peter Yoo, who is also an associate pastor of Family Chapel. As Lim takes on the roles of teaching and developing small groups, Yoo will continue to take care of the administrative needs of the congregation.

Family Chapel has lacked a head pastor for the past two years, during which time Rev. Jim-Bob Park, the head pastor of Oriental Mission Church (OMC), had been guest preaching for the congregation. The head pastoral position for Family Chapel still remains vacant.

Lim, who is currently pursuing his M.Div. at Talbot School of Theology of Biola University, describes himself as a 'home-grown' pastor. He has been a member of OMC since his childhood, and began his pastoral career there as well. Previous to taking on the associate pastoral role for Family Chapel, he had served as the youth pastor of OMC for the past four years.

Though having grown up in the

church and knowing the ins and outs of it has helped shape his hopes for the church, Lim says that having grown up there also offered some difficulties. His age (Lim is in his late twenties) along with some other factors also led to feelings of inadequacy when he was first offered the position, he recalled.

"I once heard from Professor Benjamin Shin (of Talbot) that in a Korean or Asian church culture, there are five factors that will help a pastor to command respect," Lim explained. "Age, marriage, education, ordination, and children."

"I have none of those," he said, laughing.

"Even though Family Chapel isn't super Korean, there's an underlying Asian culture that does shape our values," he continued. "The fact that I grew up here -- that was kind of a difficulty. Preaching to my peers was new -- not that pastors shouldn't be friends with the congregation, but that friend dynamic suddenly shifted to a pastor-congregation dynamic."

However, Lim says his outlook on his new position, and of the church, is "hopeful."

"One thing that I'm reminded of is what Charles Spurgeon once said: 'He may preach the gospel better than I can, but he cannot preach a better gospel.' That's what

I've been reminding myself as I go to the pulpit," Lim said. "Yes, there are all these factors that may make it harder for me, but at the end of the day, I'm preaching the gospel, and by God's grace, anyone can be convicted and changed."

Lim also said he's hopeful for the future of Family Chapel, and the potential it has to reach the community, particularly working professionals.

"Family Chapel is in such a prime place to reach those working professionals with the gospel, the good news, that will satisfy their hearts," Lim explained, as he mentioned the confusion that young working professionals may face.

"I also want to see Family Chapel be a place where we're able to raise up leaders for the local church," he added. "I think that would be a continuation of the legacy of OMC. It's one of the most dysfunctional churches -- and I can say this because I'm a member of the church -- but for whatever reason, many of OMC's members have become pastors and are leading healthy churches. And I want to continue that legacy where we are training and raising up future pastors, missionaries, elders, and deacons, and continue to bless the local church. I don't know what that's going to look like yet, but that's the calling that God has placed on my heart."



SOW members dancing during this year's annual performance. (Photo: SOW)

Hundreds Gather for 'Seeds of Worship' Performance

BY RACHAEL LEE

Seeds of Worship (SOW), the Korean American musical and body worship team consisting of children and teens, hosted its annual performance on June 25 at Nachrimban Church. About 500 people gathered, and the performance garnered large interest from the community.

The theme of the performance was 'New Day,' signifying gratitude that God allows each person a new day every day, and to encourage the audience to embrace a new hope as they live out their lives.

"We were so happy and thankful that so many young people, who will be carrying the weight of the future, came and that we were able to spend that time together with them," Esther Park, one of the heads of the SOW team, said.

SOW consists of some 8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performs body worship numbers as well as musical theatre performances. SOW will be visiting South Korea for two weeks starting July 18 to visit orphans and various churches to perform.

Apologist Hugh Ross to Speak in Koreatown

New Covenant Academy, a K-12 Christian school located in Los Angeles, will be hosting an apologetics event featuring Dr. Hugh Ross, the president and founder of Reasons to Believe, the school announced on Tuesday.

"Dr. Ross is a renowned and accomplished Christian scientist who has provided compelling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the Christian God for the past four decades," the school said in a press release.

"He speaks ... to equip Christians to engage, rather than withdraw from or blindly retaliate, in discussions with educated non-Christians," the press release continues. "We encourage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to attend this first-ever apologetics event in Koreatown to have their questions answered and their faith strengthened."

The event will take place on September 9 at 7PM.

Meanwhile, New Covenant Academy, which is a WASC-accredited school, consists of 175 students and 16 full-time teachers.



A group photo of one of CEF's previous New Life Bible Camps. (Photo: CEF)

'Stand With God, Stand For God, Stand Now'

BY RACHAEL LEE

New Life Bible Camp, a summer camp for children hosted every summer by the Child Evangelism Fellowship, will be taking place this year from July 18 to 21 at Rancho Ybarra Christian Camp, located in Tujunga.

This camp focuses on leading children to receive Christ, and to have confidence in the gospel. Leaders also guide children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as children of God. Morning portions feature worship and Bible

study, and afternoon portions include fellowship, sharing, and personal encounters with God. Night sessions focus on prayer and worship.

The theme for this year's camp is, "STAND - Stand WITH God, Stand FOR God, Stand NOW." The camp will be taking up to 130 registrants in the 3rd to 7th grades. Registration for one person is \$195.

Children Evangelism Fellowship, which was founded in 1937, focuses on evangelizing to and discipling children from a young age.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PASTOR JUSTIN KI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ASTOR SUNG CHANG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Iowa Churches Required to Comply with State Bathroom Laws

BY CHRISTINE KIM

Iowa churches must allow people to use the bathroom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and cannot make statements that could make gay or transgender people feel unwelcome, according to the Iowa Civil Rights Commission (ICRC).

A brochure, titled "A Public Accommodations Provider's Guide to Iowa Law," published by ICRC states that it is illegal for public spaces to discriminat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due to the latest update made to the Iowa Civil Rights Act.

In the section titled, "Does this Law Apply to Churches?" the answer is "Sometimes."

"Iowa law provides that these protections do not apply to religious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any religion-based qualifications when such qualifications are related to a bona fide religious purpose," the brochure reads. "Where qualifications are not related to a bona fide religious purpose, churches are still subject to the law's provisions. (e.g. a child care facility operated at a church or a church service open to the public)," the brochure reads.

Fort Des Moines Church of Christ

filed a federal lawsuit, represented by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against the Iowa Civil Rights Commission, arguing that not granting exemption to churches, essentially censoring biblical teaching,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ADF attorneys representing Fort Des Moines Church of Christ in Des Moines argue in the lawsuit that all events held at a church on its property have a bona fide religious purpose, and that the commission has no authority to violate the First Amendment's guarantees of freedom of religion and speech," ADF said in a statement.

Franklin Graham Urges Christians to Pray Before GOP and Democratic Conventions

Reverend Franklin Graham will organize two prayer events for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s. The prayer events are scheduled right before each of the conventions.

"Our country is in a huge mess. Shootings, riots, and protests now claim the headlines about America, and that's heartbreaking. We are in desperate need of Divine intervention. We need healing. Prayer is what can make a difference in America," he wrote on his Facebook page.

"We will pray for our broken nation and for America's future. We will pray for these political conventions and the upcoming election. God's Word tells us that if we humble ourselves, confess our sins, and turn from our wicked ways, God will heal our land (2 Chronicles 7:14). He's the only one who can."

America was grieved by a series of violent incidents including the recent Orlando shooting which claimed 50 lives, two shootings of black men by police, and retaliatory shootings on police officers in Georgia, Tennessee, Missouri, and Dallas.

He wrote that the first of the prayer events will be held on "July 18, at 12:00



Franklin Graham speaking at one of the stops during the Decision America Tour. (Photo: Matt Johnson / CC)

Noon Eastern—I'm asking you to pray with me live on Facebook just before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opens... Then the following Monday, July 25, before the opening of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we will pray together again."

His post received 1.4 million views, 120,000 likes, and 81,000 shares.

Graham has held many prayer rallies interceding for America before, including an ongoing Decision America Tour, which has its stops around the country until October.

"Franklin Graham is traveling to all

50 states in 2016 to hold prayer rallies, to preach the Gospel, and to challenge believers to take a stand and take ac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America website.

He urged Americans to come to his Facebook page for the prayers, and to set reminders on their phones and laptops so that they do not miss being a part of the online gathering: "The Bible says that the prayers of one righteous person avail much (James 5:16). So if there are thousands of us calling out to God on behalf of our nation, can you imagine what He might do?"

Biblical Theme Park 'Ark Encounter' Opens

The life-size replica of Noah's Ark by Creationist Ken Ham, built on exactly the same specifications as described in the Bible, finally opened in Kentucky, drawing about 8,000 people to the ribbon-cutting ceremony.

The vessel, 510 feet long and almost seven-stories high, was built in six years at the cost of \$100 million. The ark is an initiative of Ham's Answers in Genesis ministry, and sits on an 800 acre-field in Williamstown.

Ham said that the theme park opened to the public on July 7 (7/7) which matches with the Biblical verse Genesis 7:7, when Noah's family entered the ark.

"We are so excited that the construction progress and schedule landed on this 7/7 date. Genesis 7:7 states that Noah and his family entered the Ark. So it's fitting we allow the public to enter the life-size Ark on 7/7," Ham said in November when the opening date was first announced.

"In a world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secularized and biased, it's time for Christians to do something of this size and this magnitude," he was quoted as saying in another one of the ministry press releases.

America Research Group estimates that between 1.4 to 2.2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visit the ark in the first year, and that around 400,000 people will come to the Creation Museum.

The three decks of the ark have 125,000 square feet of exhibits. The Ark Encounter also features an Ararat Ridge Zoo, donkey and camel rides, along with a 1,500-seat themed restaurant.

The Ark Encounter is being opposed by atheists in Australia, the home country of Ken Ham, and in the US as well. American Atheists in Texas, and Tri-State Freethinkers from Kentucky, Indiana, and Ohio asked their supporters to protest against Ark encounter.

Ham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protesting was very small compared to the actual number of visitors to the Ark Encounter.

"Many news sources today (including my homeland of Australia) are reporting on a group protesting the life-size Ark opening today in N. Kentucky. News.com.au states there'll be a 'renewed wave of protest' - as if there's some sort of massive protest against the Ark. One news source had the headline 'Protesters fire up as Aussie's

ark opens.' Wow. This must be some massive protest!" Ham wrote on Facebook.

The Tri-State Freethinkers went as far as to attempt running an ad next to the Ark's entrance, which read "Genocide & Incest Park ... celebrating 2,000 years of myths."

The Billboard companies declined to put up the ad as they said it was inappropriate.

"We default to accepting most all copy, but if there's something we deem not appropriate then we don't run it," Tom Fahey, manager of the Cincinnati office of Lamar, told Kentucky.com. "It seemed more inflammatory in nature than anything else."

"For our supporters' preview of the Ark on Tuesday, we had over 8,000 visitors, and another 7,000 yesterday--and who knows how many thousands today. The interest is very high--the people reach on my Facebook has over 7 million the last few days," Ham said.

He continued: "So a handful of atheists protest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eople coming to a Christian Themed Attraction and attract media attention--thanks for the publicity."

Russia's 'Yarovaya' Law to Impose Restrictions on Evangelism, Speech

Russia's new legislation to counter terrorism is being seen as extraordinarily restrictive and is expected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citizen freedom.

The law increases internet and telecom surveillance, and threat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It also effectively bans proselytizing outside of government recognized churches.

The legislation is named the "Yarovaya Law" after its author and lawmaker Irina Yarovaya.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July 2018, the laws will give broad powers in the hands of the enforcement, which critics fear will be used to censure disagreements and political activism as in the communist era.

The restrictions "will make it easier for Russian authorities to repress religious communities, stifle peaceful dissent, and detain and imprison people," said Thomas J. Reese, Chair of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Neither these measures nor the currently existing anti-extremism law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standards," he added.

The telecom companies will now be required to retain communications of users for the last six months, and metadata up to three years.

"Russia's new counterterrorism law takes Big Brother surveillance to a whole new level," said Cynthia Wong of Human Rights Watch. "No digital communication would b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o matter how innocuous or unrelated to terrorism."

The other amendments of the law include lowering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4 years, and seven years of prison sentence for promotion of "extremism," which includes internet or media statements.

Religious groups, especially smaller

denominations, are going to bear a huge portion of the brunt of the new laws which impose limiting conditions such as banning worshiping and praying in presence of unbelievers, preaching the Gospel in homes, sending emails to friends inviting them to attend church, evangelizing on streets, and talking about faith to a stranger in a bus. If any foreigner attends an unregistered church, he is liable to be deported to his country.

Violators will be required to pay a fine of \$780 for individuals, and up to \$15,000 for organizations, according to a Religion News Service report.

The mainline Christian denominations such as Russian Orthodox Church, and Roman Catholic Church are allowed a public space in the country without substantial government restrictions, but smaller churches including Protestants have a minuscule presence (1%) in the country.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PASTOR STEVE CHOI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a.org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H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